

## 2023 ARPS 교재 연례개정

### 1권. 은퇴설계의 New Paradigm

쪽수	출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7	그림	그림 1-1	[첨부 1] 참조	그림 수정
17 ~ 18	하1 ~상4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1년 3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25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자산보유액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50대 가구가 평균 5억 6741만원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60세 이상에서 가구당 자산 보유액은 4억 8,914만원으로 50대 가구를 훨씬 밑돌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2년 3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4,772만원에 불과하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자산보유액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50대 가구가 평균 6억 4,236만원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60세 이상에서 가구당 자산 보유액은 5억 4,372만원으로 50대 가구보다 적다.	내용 수정
23	하4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된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거나, 높은 세율(16.5%)로 분리과세 해야 한다.	법률 개정
25	하6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5세(남자 80.5세, 여자 86.5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6세(남자 80.6세, 여자 86.6세)이다.	내용 수정
26	상5~7	노인대국 일본의 경우 1990년 이후 100세 이상 고령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더니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고 있다	삭제	내용 삭제
26	상4~5	주민등록연앙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0년 2,638명에서 2021년 6,582명으로 2.5배 늘어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2,803명에서 2022년 7,169명으로 2.5배 넘게 늘어났다.	내용 수정
26	그림	그림 1-2	[첨부 2] 참조	그림 교체

26~27	26 하4 ~ 27 상3	아래 그림은 일본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일본의 100세이상 고령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인구 5천만 명인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가 2만 명 남짓인데, 일본은 어떨까? 일본후생노동성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일본 100세인은 6만 1,568명으로 나타났다. 생각보다 그 수가 많은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증가속도에 있다. 2000년 이전만 하더라도 1만 명 남짓이었던 100세인이 2015년에는 6만 명을 넘어섰다. 15년 남짓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100세인이 6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삭제	내용 삭제
27	그림	그림1-3	삭제	그림 삭제
29	상9~10	한국인 남성의 평균수명은 1970년 58.7세에서 2020년 80.5세로 21.8세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의 평균수명도 65.8세에서 86.5세로 20.7세 늘어났다.	한국인 남성의 평균수명은 1970년 58.7세에서 2020년 80.6세로 21.9세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의 평균수명도 65.8세에서 86.6세로 20.8세 늘어났다.	내용 수정
29	그림	그림 1-4	[첨부 3] 참조	그림 수정
30	상2 ~ 상5	60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1970년 12.7년에서 2020년 23.4년으로 10년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60세 여성의 기대여명도 18.4년에서 28.2년으로 10년 가까이 늘어났다. 기대여명을 고려하면 현재 60세인 남성은 평균 83.4세, 여성은 88.2세까지 산다는 계산이 나온다.	1970년만 하더라도 12.7년이었던 60세 남성의 기대여명이 2021년에는 23.5년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60세 여성의 기대여명도 18.4년에서 28.4년으로 늘어났다. 현재 60세인 남성은 평균 83.5세, 60세 여성은 평균 88.4세까지 산다는 계산이 나온다.	내용 수정
30	그림	그림 1-5	[첨부 4] 참조	그림 수정
33	상8~11	2020년에 태어난 남성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80.5세인데, 이 중 유병기간이 14.9년이나 된	삭제	내용 삭제

		다. 인생의 18.5%를 병치레를 하며 보내는 셈이다. 여성의 상황은 이보다 못하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이 86.5세 인데, 이 중 19.3년(22.3%)을 병치레를 하며 보낸다.		
34	상5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30%가 혼자 산다고 한다.	2020년 현재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34.9%가 혼자 산다. 그리고 2050년에는 그 비율이 41.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용 수정
34	상10		표 추가 [첨부 5 참조]	표 추가
38	하4~하3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내용 수정
41	하7 ~ 하2	2020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50대 가구가 보유한 자산은 평균 5억 6,741만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다. 40대 가구도 50대와 엇비슷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가구가 보유한 자산은 평균 5억 5,370만원이다. 39세 이하 가구가 보유한 자산은 3억 5,625만원으로 40~50대 가구의 보유자산규모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22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50대 가구가 보유한 자산은 평균 6억 4,236만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다. 40대 가구가 보유한 자산은 평균 5억 9,241만원으로 50대 가구보다 적었다. 39세 이하 가구가 보유한 자산은 3억 6,333만원으로 40~50대와 큰 차이를 보였다.	내용 수정
42	표	표 1-3	[첨부 6] 참조	표 교체
57	하2~1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4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400만원이면 이 또한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한다.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한 달치 급여와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내용 수정
58	하5 ~ 하1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친 국내 연금자산 규모는 2020년말 1,454조원이다. 2009년말 국내 연금자산 규모가 428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남짓 되는 기간에 3.4배나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자산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친 국내 연금자산 규모는 2021년말 1,613조원이다. 2011년말 국내 연금자산 규모가 576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남짓 되는 기간에 2.8배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자산은 349조원에서	내용 수정

		278조원에서 834조원으로 3배 성장한 반면 사적연금자산은 150조원에서 620조원으로 4.1배 성장했다. 사적연금 자산규모가 국민연금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949조원으로 2.7배 성장한 반면 사적연금은 227조원에서 664조원으로 2.9배 성장했다. 사적연금 규모가 국민연금보다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59	표	표 1-5	[첨부 7] 참조	표 수정
59	상1 ~ 상3	특히 퇴직연금 자산의 증가폭이 컸다. 2009년 14조원에 불과했던 퇴직연금자산은 2020년에는 256조원으로 18배 성장했다. 최근 개인연금 중 세제적격연금이 세제비적격연금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만 하다.	특히 퇴직연금 자산의 증가폭이 컸다. 2011년 50조원에 불과했던 퇴직연금자산은 2021년에는 296조원으로 성장했다. 최근 개인연금 중 세제적격연금이 세제비적격연금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도 눈여겨 볼만하다.	내용 수정
59	표	표 1-6	[첨부 8] 참조	표 수정
62	하3 ~하2	2018년에는 연금선택 비율이 93.3%에 이르고 있다.	2021년에는 연금선택 비율이 93.1%에 이르고 있다.	내용 수정
63	그림	그림 1-14	[첨부 9] 참조	표 수정
63	상1~3	1982년 당시만 해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66.7세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2.7세로 늘어났다. 36년 동안 평균수명이 16년 늘어난 셈이다.	1982년 당시 67.2세였던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21년에는 83.6세로 16.4년 늘어났다.	내용 수정
64	그림	그림1-15	[첨부 10 참조]	그림 수정
64	상2	2018년 1.9%로 곤두박질친 것을 볼 수 있다.	2021년 1.2%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내용 수정
99	하3~2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3.8%에서 2020년 37.2%로 증가했다.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8.3%에서 2021년 39.4%로 증가했다.	내용 수정
100	그림	그림 2-8	[첨부 11] 참조	그림 수정
100	하3 ~하1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4년 연말만 하더라도 34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령자가 2020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4년 연말만 하더라도 34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령자가 2021년말	내용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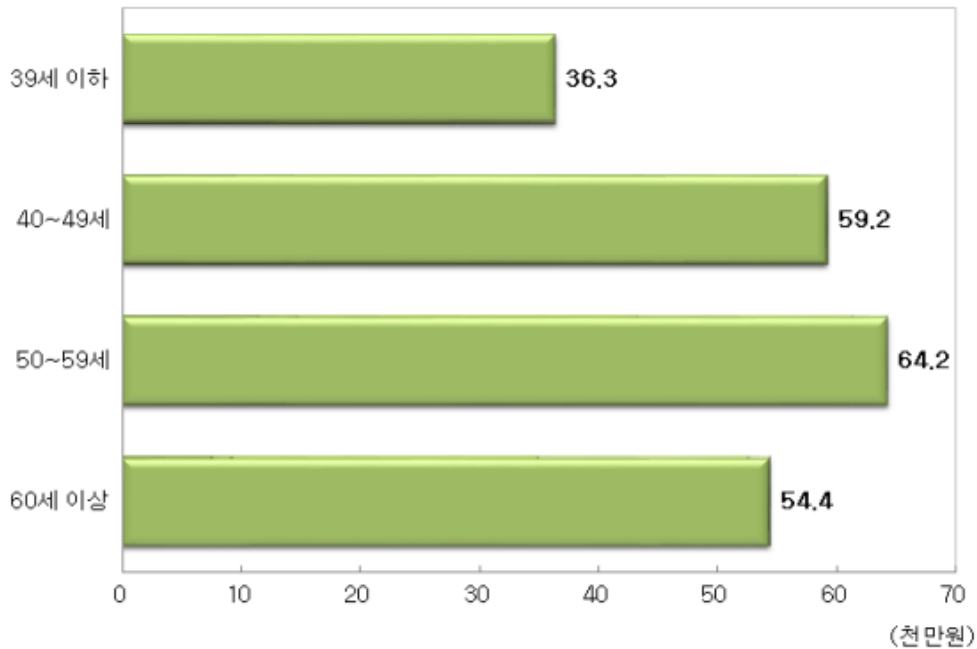
		<p>년말에는 42,832명으로 늘 어났다. 특히 분할연금 수령자 중 여성이 90%에 육박한다는 점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p>	<p>에는 54,348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분할연금 수급자 중 여성이 48,117명으로 90%에 육박한다는 점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p>	
101	그림	그림 2-9	[첨부12] 참조	그림 수정
103	하3 ~하1	<p>이렇게 고령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은 남녀간 수명 차이 때문이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성은 80.5세, 여성은 86.5세이다.</p>	내용 삭제	내용 삭제
105	상3 ~상11	<p>2021년 10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475만명이 넘는데, 이중 여성은 172만명으로 36.2%에 불과하다. 게다가 여성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는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는 사람은 9만3,000여명으로 겨우 5.6% 밖에 안된다. 이에 비해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는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48만명으로 28.7%나 된다. 이들은 가입기간이 짧다 보니 받는 연금 수령액도 적을 수 밖에 없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비례해 늘어난다. 2021년 11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월평균 94만 4,000원을 노령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반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19년 이하인 사람은 노령연금으로 월평균 39만 5,000원을 수령하고 있었고,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2만 1,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p>	<p>2022년 10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522만명이 넘는데, 이중 여성은 195만명으로 37.4%에 불과하다. 게다가 여성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는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는 사람은 13만3,888명으로 겨우 7.1% 밖에 안된다. 이에 비해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는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466,992명으로 24.6%나 된다. 이들은 가입기간이 짧다 보니 받는 연금 수령액도 적을 수 밖에 없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비례해 늘어난다. 2022년 10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월평균 97만 9,542원을 노령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반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19년 이하인 사람은 노령연금으로 월평균 40만 2,854원을 수령하고 있었고,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2만 6,831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p>	내용 수정
106	그림	그림 2-12	[첨부 13] 참조	그림 수정
117	상12 ~상14	<p>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3.8%에서 2020년 37.2%로 증가했다. 이혼한 부부 열 쌍 중 네 쌍이 황혼이혼</p>	삭제	내용 삭제

		에 해당한다.		
139	하7 ~하4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 까지 적용되는 하한액은 33만원 이고 상한액은 524만원이다. 따 라서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 이 33만원보다 적으면 33만원 이 기준소득월액이 되고, 524만 원보다 많으면 524만원이 기준 소득월액이 된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 지 적용되는 하한액은 35만원이 고 상한액은 553만원이다. 따라 서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이 35만원보다 적으면 35만원이 기 준소득월액이 되고, 553만원보다 많으면 553만원이 기준소득월액 이 된다.	내용 수정
142	상4 ~상5	2022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요율은 6.99%인데, 절반은 회 사에서 납부하므로 근로자는 3.495%만 납부하면 된다.	2022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요 율은 7.09%인데, 절반은 회사에 서 납부하므로 근로자는 3.545% 만 납부하면 된다.	내용 수정
142	상18	사업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사업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피부 양자가 될 수 없다.	내용 수정
143	그림 3-1	연간 과세소득이 3,400만원 이 하일 것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것	내용 수정
145	하4~3	2019년 이직자의 구직급여 1일 하한액은 60,120원이다.	2023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은 61,568원이다.	내용 수정
146	상7~11	1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 센터에 출석해 재취업을 위해 적극 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사실을 인정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 다. 2, 3차 실업인정일에는 자기주도적인 재취업 활동을 보 장하기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 지(www.ei.go.kr)에서 인터넷 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차 실업인정일부 터는 다시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 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 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예외적 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서 구 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내용 수정
147	하3	50km	25km	내용 수정
147	하단		[첨부14 참조] 표 3-8	표 추가

152	상2~4	2018년 통계청에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55세~79세)에게 일하려고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생활비에 보탬'이라고 답한 사람이 59.0%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이라고 답한 사람도 36.5%나 됐다	2022년 통계청에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65세~79세)에게 일하려고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생활비에 보탬'이라고 답한 사람이 53.3%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이라고 답한 사람도 37.3%나 됐다	내용 수정
152	그림	그림 3-3	[첨부 15] 참조	그림 교체
168	표	표 3-10	표 교체 [첨부 16 참조]	표 교체
169	표		표 추가 [첨부 17 참조]	표 추가
249	표	표4-9	표 교체 [첨부 18 참조]	표 교체
250	하5~1	2020년에 국민연금연구원이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부기준으로 50대는 노후생활비로 월 276만원, 60대는 월 247만원, 70대는 월 194만원, 80세 이상은 월 17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인기준으로는 50대는 월 160만원, 60대는 월 148만원, 70대는 118만원, 80세 이상은 100만원을 예상했다.	2021년에 국민연금연구원이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부기준으로 50대는 노후생활비로 월 284만원, 60대는 월 257만원, 70대는 월 200만원, 80세 이상은 월 204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인기준으로는 50대는 월 180만원, 60대는 월 158만원, 70대는 121만원, 80세 이상은 126만원을 예상했다.	내용 수정
250	그림	그림4-19	그림 교체 [첨부 19 참조]	그림 교체

### [첨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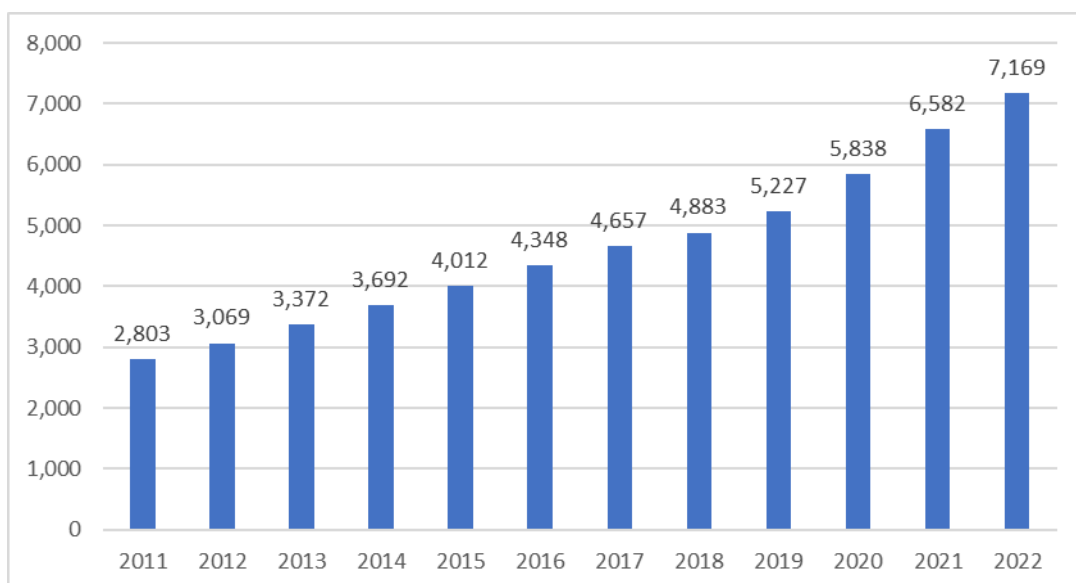
[그림 1-1] 연령대별 가구당 자산보유 현황



출처 :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첨부 2]

[그림 1-2]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 추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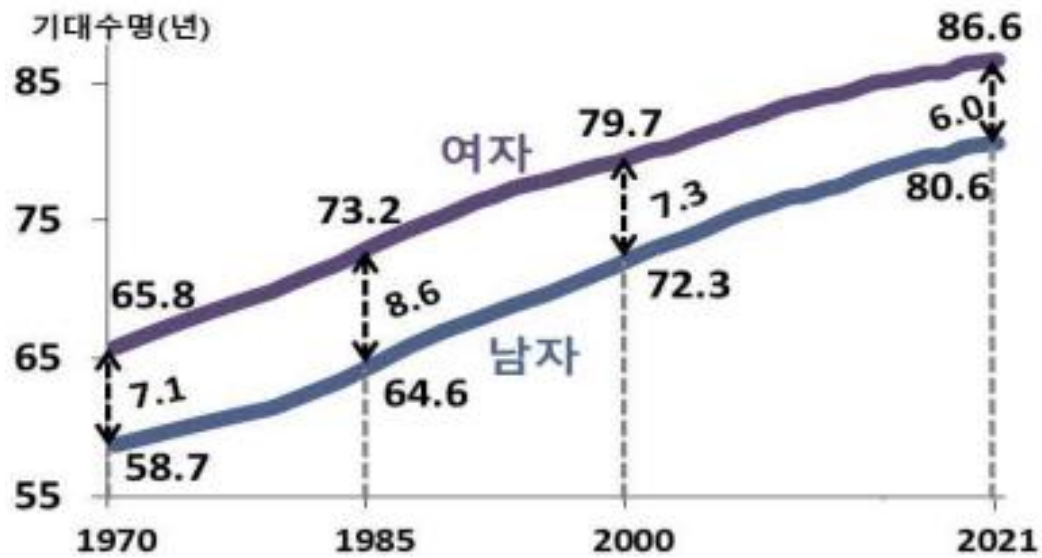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첨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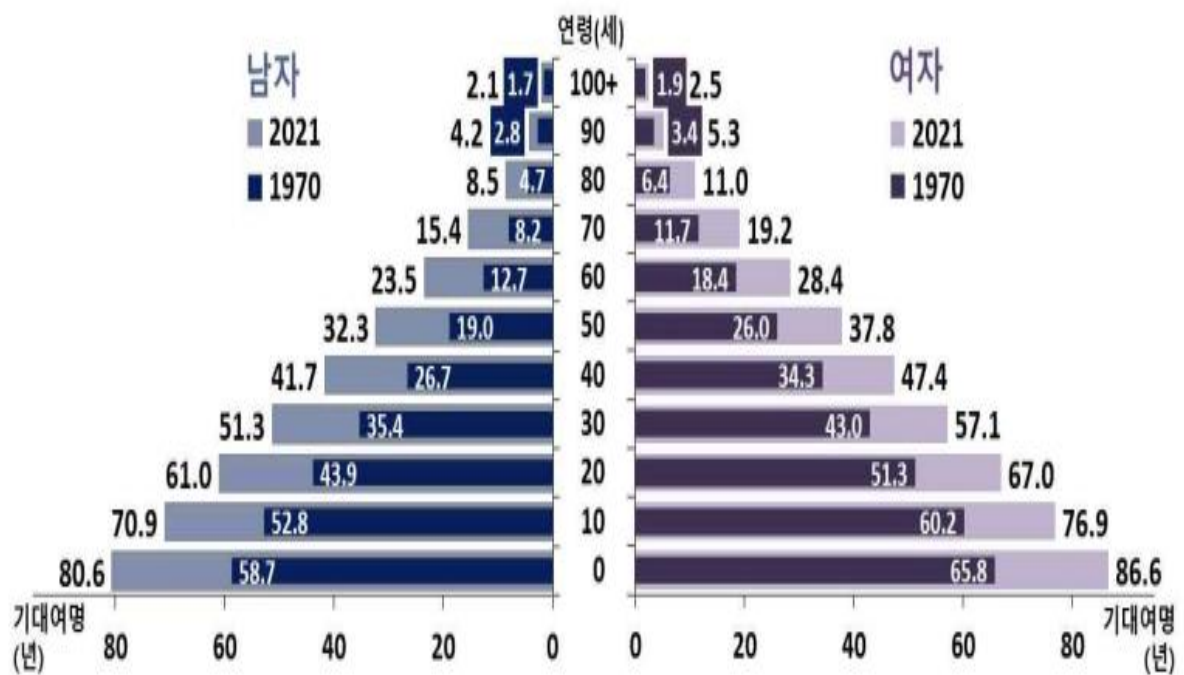
[그림 1-3] 성별 기대수명 및 남녀 수명 차이 추이 (1970~2020년)



출처 : 통계청, 2021년 생명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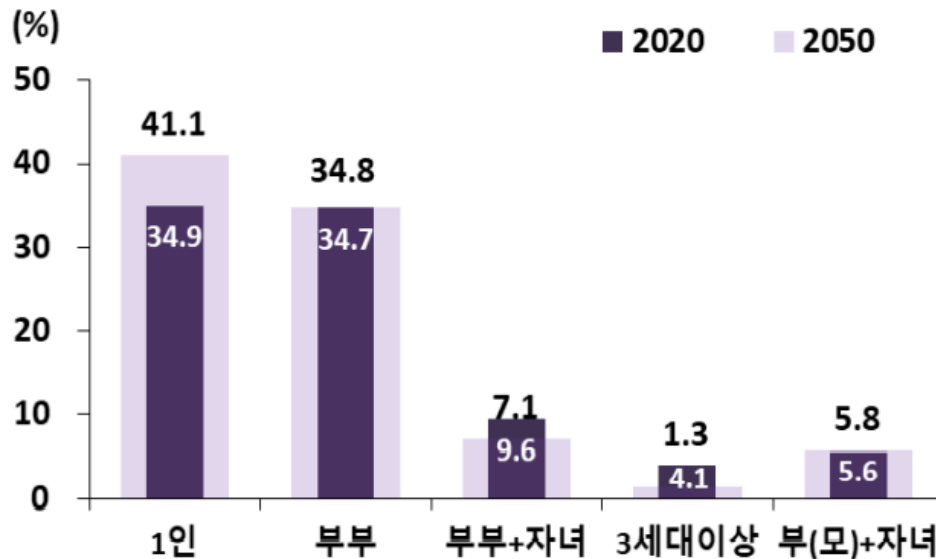
[첨부 4]

[그림 1-4] 성, 연령별 기대여명 (1970년, 2021년)



[첨부 5]

[그림 1-6] 65세 이상 가구 유형별 구성비 변화 (2020년, 2050년)



출처 : 통계청, 2022년 장래가구추계

[첨부 6]

[표 1-3] 가구주 연령대별, 종사자 지위별 자산보유 현황

(단위: 만원, %)

		자 산	금 용 자 산			실 물 자 산				
				저축액	전·월세보증금		구성비	부동산	거주주택	기타
전 체		54,772	12,126	8,548	3,577	42,646	77.9	40,355	25,496	2,292
가 구 주 연 령 대 별	3 9 세 이 하	36,333	12,489	5,555	6,934	23,844	65.6	21,927	15,648	1,917
	· 29 세 이 하	13,498	7,728	2,313	5,415	5,770	42.7	5,089	3,614	681
	· 30 ~ 39 세	41,246	13,514	6,253	7,261	27,732	67.2	25,549	18,237	2,183
	4 0 ~ 4 9 세	59,241	14,315	9,444	4,871	44,927	75.8	42,167	29,348	2,759
	5 0 ~ 5 9 세	64,236	14,674	11,413	3,261	49,562	77.2	46,662	28,539	2,899
	6 0 세 이 상	54,372	9,219	7,574	1,645	45,153	83.0	43,329	25,728	1,824
가 구 주 종 사 자 지 위 별	상 용 근 로 자	61,848	15,911	10,408	5,503	45,937	74.3	44,040	30,013	1,897
	임사·일용근로자	24,142	5,744	3,941	1,803	18,397	76.2	17,640	12,859	758
	자 영 업 자	66,256	11,507	9,128	2,379	54,749	82.6	49,265	24,616	5,485
	기타(무직 등)	45,167	8,446	6,639	1,807	36,721	81.3	36,049	23,998	672

출처 :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첨부 7]

[표 1-5] 공적, 사적 연금시장 적립금 성장 추이 (단위 : 조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민연금	349	392	427	470	512	558	621	639	737	834	949
사적연금	227	282	329	377	419	458	499	528	572	620	664
전체	576	674	756	847	931	1,016	1,120	1,167	1,309	1,454	1,613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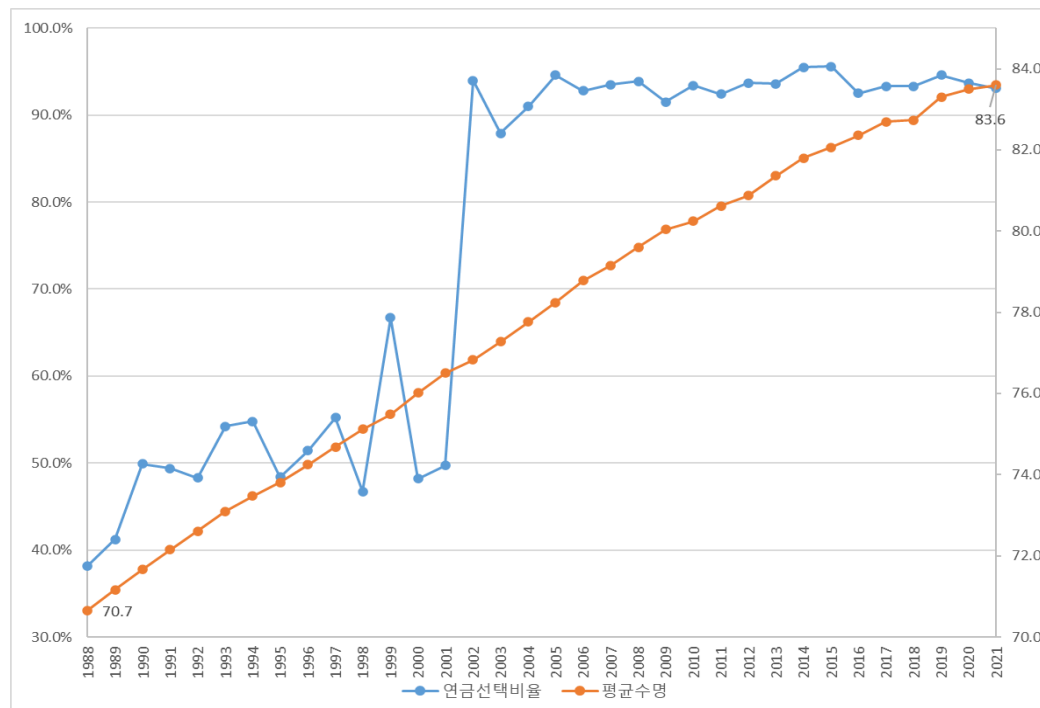
## [첨부 8]

[표1-6] 사적연금 적립금 성장 추이 (단위 : 조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퇴직연금	50	67	84	107	126	147	168	190	221	256	296
세제적격	68	78	90	101	109	119	129	135	143	152	160
세제비적격	109	137	155	169	184	192	201	202	208	213	208
총 계	227	282	329	377	419	458	498	527	572	620	664

## [첨부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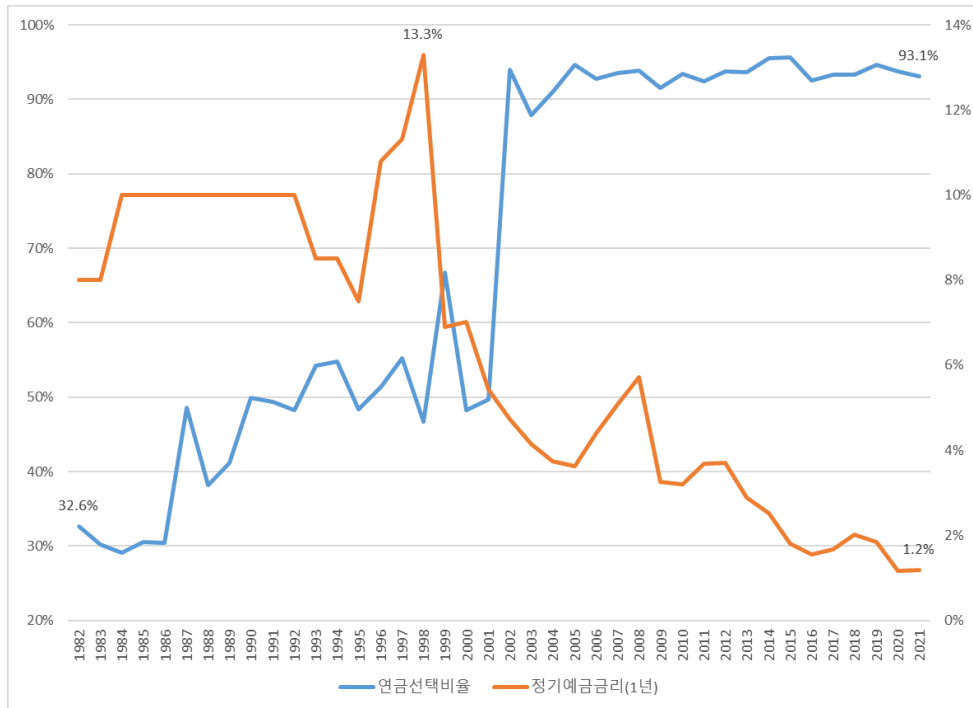
[그림1-14] 평균수명과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금선택비율



출처 :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통계청, 공무원연금공단)

[첨부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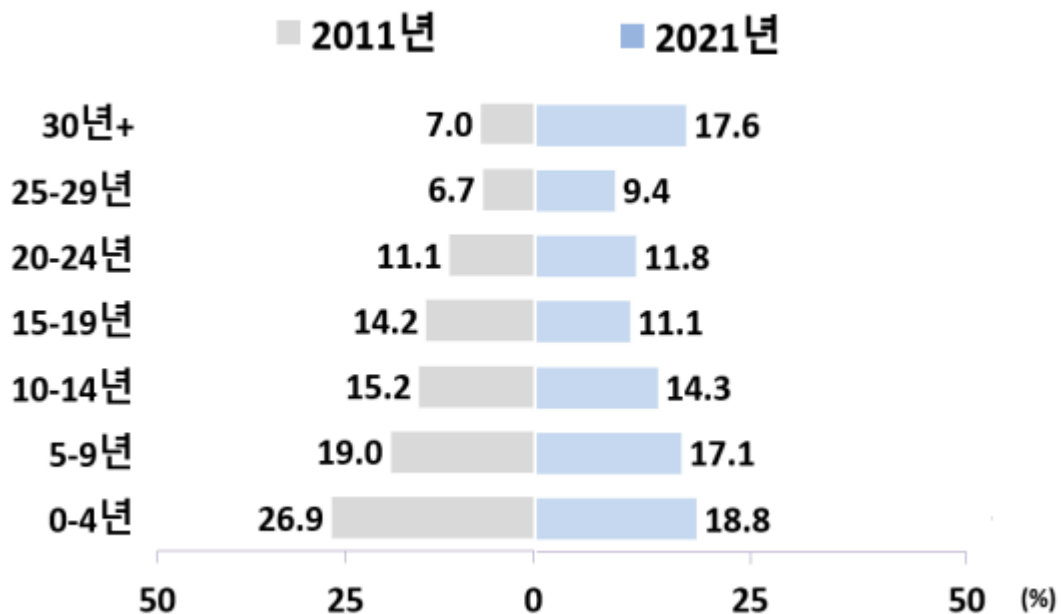
[그림1-15] 금리변화와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금선택비율



출처 :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한국은행, 공무원연금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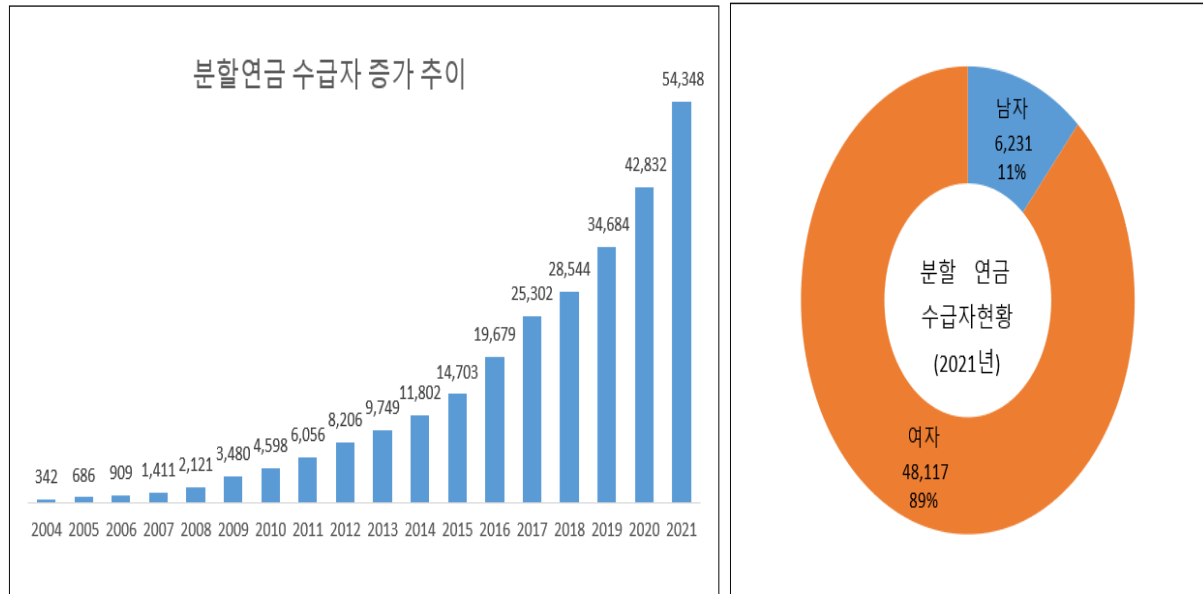
[첨부 11]

[그림 2-8] 혼인 지속 기간 별 이혼 구성비 (2011년, 2021년)



[첨부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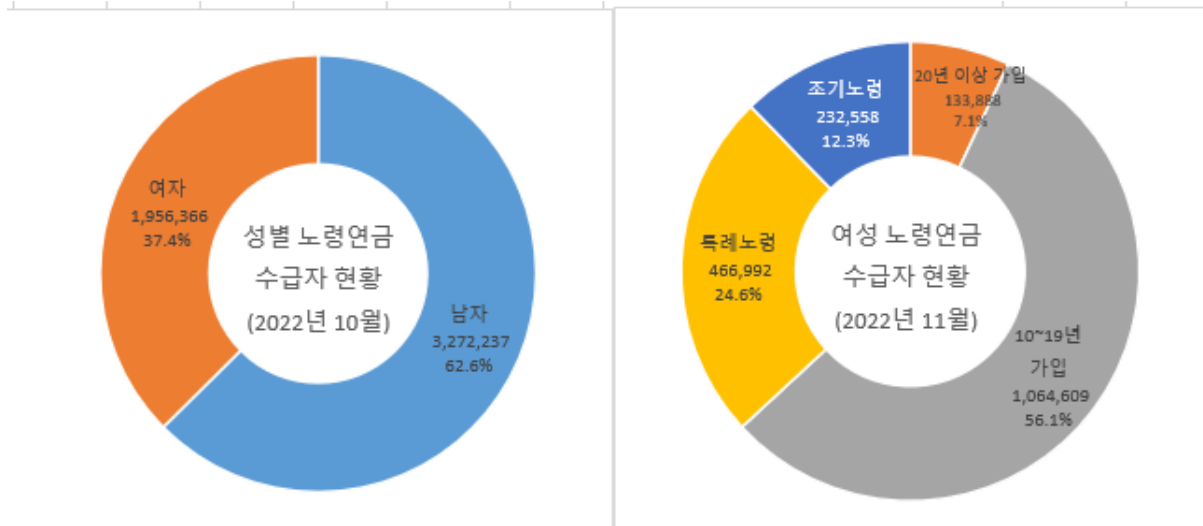
[그림2-9]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 추이



출처 : 국민연금공단

[첨부 13]

[그림 2-12] 여성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출처 : 국민연금공단

[첨부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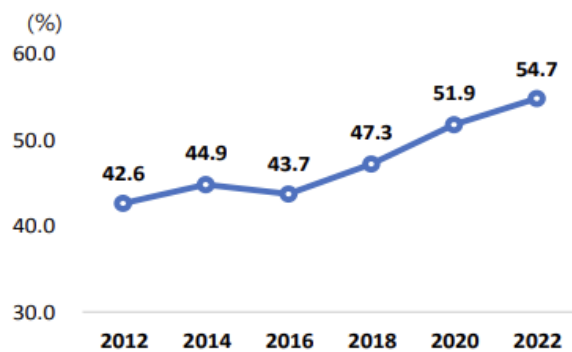
[표3-8]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

종류	요건	지급액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 7,530원(1일)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이주비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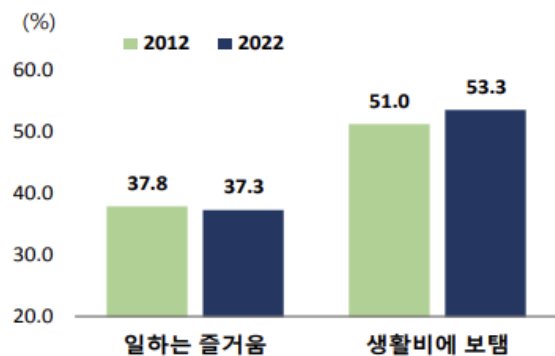
[첨부 15]

[그림 3-3] 고령자의 취업의 의사와 취업을 원하는 이유

< 장래 근로 원함 (65세~79세) >



< 취업을 원하는 이유 (65세~79세) >



출처 : 통계청, 2022년 고령자통계

[첨부 16]

[표 3-11] 국민건강보험의 일반건강검진 대상과 검사항목

● 검진대상

구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비고
	대상	주기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 2년에 1회	
직장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 2년에 1회	
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 사무직 대상자 전체	· 사무직 : 2년에 1회 비사무직 : 1년에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	· 19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 외	· 2년에 1회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실시

※ 일반건강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에 한하여 병원에서 확진검사 실시

● 검사항목

구분	검사항목(대상연령 등)	
공통항목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요단 백), 구강검진 등	
성·연령별 항목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 검사)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 마다
	B형간염	40세
	골다공증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2년에 1회)
	우울증	20, 30, 40, 50, 60, 70세(해당 연령대에 1회)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노안신체기능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	40세

## [첨부 17]

[표 3-12] 국민건강보험의 암 검진 대상

구분	대상	검진주기	대상유예
위암	40세 이상인자	2년	암 산정특례 적용자 또는 암검진 실시 기준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유예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인자	2년	
대장암	50세 이상인자	1년	
간암	40세 이상인자 중 · 해당연도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간암발생고위험군 (간경병증, 만성 간질환자 등 해당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6개월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인자	2년	
폐암	54~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인자 · 고위험군 기준 -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일반·생애)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과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 자 - 해당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15년 이내, 74세까지	2년	

## [첨부 18]

[표 4-9] 노후생활비 얼마나 필요한가?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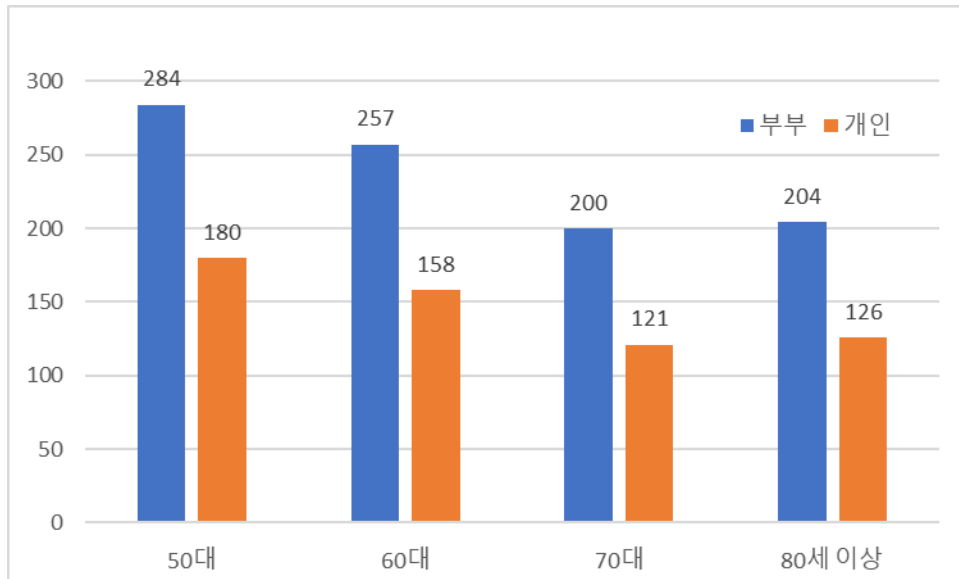
구분	필요 최소 노후생활비		필요 적정 노후 생활비	
	부부	개인	부부	개인
전체	198.7	124.3	277.0	177.3
서울	232.0	144.0	330.0	205.3
광역시	203.7	122.2	279.9	173.9
도	185.8	119.0	258.7	170.1

출처 : 국민연금연구원 (2021 년 제 9 차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첨부 19]

[그림 4-19] 연령대별로 예상하는 월평균 노후생활비 (단위 : 만원)



출처: 국민연금연구원 (2021 년 제 9 차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